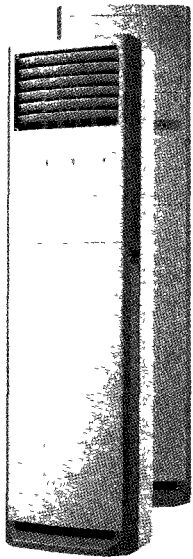


에너지 단신

범양냉방공업(주) 법정관리 졸업

제2의 도약, 기술력 배양과 마케팅 역량강화



지난 98년 3월 부도로 법정관리 중인 범양냉방공업(주)가 가이산업 및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구조조정전문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구조조정조합 컨소시엄에 242억에 매각이 완료되면서 법정관리 4년여 만에 7월 25일자로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CW)구조조정조합 컨소시엄은 범양냉방의 인수대금 중 180억원(유상증자 120억원, 전환사채 발행 60억원)은 자체 조달하고, 62억원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범양냉방공업(주)는 1963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에어컨 생산업체로 에어컨, 냉동기 등 각종 냉동공조기 전문

업체로 일본 다이킨, 미국의 시카고 블로워사, 발티모어사와 기술제휴를 통한 선진기술과 안정된 시장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IMF여파로 부실채권과 제2공장 신설 등의 자금난으로 98년 부도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특히 30여년간 주공장으로 사용하던 1만여평의 군포공장을 매각하여 300여억원의 채무를 정리하는 등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금번 법정관리 조기졸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범양냉방공업(주)은 금번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술력 배양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공조기술연구소내에 에어컨 성능실을 증설하는 등 국내 최대의 냉동기 성능시험실을 신축했으며, 올 초에는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과 냉각탑 및 빙축열 제빙코일의 국산화 및 도시형 소형 직교류 냉각탑 개발에 성공,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기업 이미지의 쇄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존 브랜드인 범양을 판오션(PANOCEAN)으로 변경하고 홍보강화 및 전문점 모집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성수기 에어컨 및 냉동공조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이미지로 경쟁한다는 적극적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

태양광 에너지개발·보급 활성화 전략 발표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3kW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2010년까지 주택 3만호('06년 1만호 '08년 2만호)에 보급하기로 하는 '태양광 에너지개발·보급 활성화 전략(Solar Land 2010 Program)'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주택용 3kW 태양광 발전시스템」, 「차세대 박막형 태양전지」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Cell 효율향상, 시스템단가 및 발전단가의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설비인증제도 도입, 성능평가센터 지정, 실증연구단지 및 Green Village 조성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과 제품의 실용화기반을 강조하는 한편, Solar City 조성, 대체에너지발전 차액보전,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 및 시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알콜연료"라고 부르는 자동차용 연료가 휘발유(1,300원/ℓ 정도)보다 300원/ℓ 정도 싼 가격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에 해당하므로 관련주유소는 이미 지자체를 통해 과징금조치를 하도록 했고, 제조회사는 검찰고발 및 국제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유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알콜연료는 '세녹스(Cenox)'라는 상표명으로 금년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서 유통된 것으로 성분은 용제(Solvent) 60%, 톨루엔(Toluen)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 10%를 혼합한 것이다. 또한 이 연료는 일단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가제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나 산업자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알콜연료"유통 강력 단속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유사휘발유" 확산

2000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1년간 64종, 3만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www.sp-stack.co.kr

新豊開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418-51
TEL.051-294-8055~6 FAX.(051)294-8057
H.P. 011-877-5389

연돌산업의 신개발 특수공법으로 차별화 선언!

신소재, 신공법으로 신풍이 환경문화를 지켜나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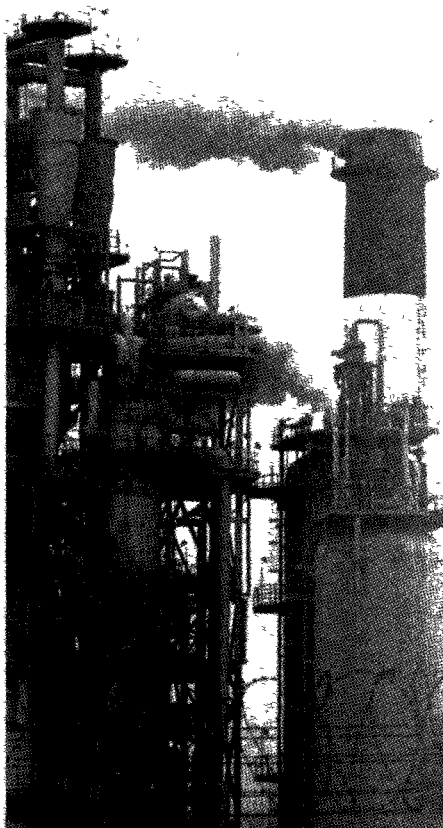
사업목록

- 연돌 안전도 점검 및 내부정밀 사진촬영 결과서
- 연돌내부 특수 세척 공사
- 연돌내외부 FRP식 코팅 보강 공사
- 연돌내부 내화벽돌 축조 및 부분 축조 공사
- 연돌외부 균형 부위(ST) 반도식 보강공사
- 연돌외부 안전용 등반이 고사다리 신설 및 교체공사
- 연돌외부 최상부 캡씰 및 피뢰침 신설공사
- 연돌외부 (철골뚝)부식 및 누수부위 보강 입합공사
- 연돌외부 특수 도장공사(대형집진기 스프레이식 도장공사)
- 연돌 철거 공사
- 기타 대형 APT 연돌 내외부 청 및 보강공사

연돌내부 ET CLEANING 목적

연소GAS중에 함유된 FLY ASH와 SOOT가 장시간 사용으로 내부에 부착되어 BOILER의 부하변동시 비산되어 공해를 유발하고 연돌의 내부에 부식을 일으켜 연소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JET CLEANING으로 부착물을 제거하여 연소효과와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고 연돌의 수명을 연장과 동시에 경비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
×연돌 청소시 검분진 100% 세척

저희 신풍개발은 귀사의 연돌에 정확한 정밀진단과 합리적인 견적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T CLEANER를 이용한 STACK세정작업 STACK내부 내화물 코팅작업 내화벽돌 철거 및 축조작업 STACK외부 BANDING공사 피뢰침 교체작업 STACK외부 도장공사

에너지 단신

환경부는 국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0년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64종, 3만톤의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나 하천, 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석유정제, 화학 등 23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중 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벤젠 등 80종의 물질에 대해 2000년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다량 배출된 물질은 톨루엔(6.2천톤), 지일렌(3.7천톤), 아연화합물(2.6천톤)이며, 전체 배출량의 78.8%가 대기로부터 증발·배출되었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순이며, 전체 배출량의 86.3%가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34.1%)과 1차 금속업종(26.2%) 등 2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60%에 이르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업체수가 타 업종에 비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환경으로 배출된 64개 물질 중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 1)은 벤젠, 염화비닐 등 5종이며, 배출량은 2천5백톤(전체 배출량의 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99년과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현재 조사대상 이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배출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까지 CNG버스로 모두 교체

버스업체, 도시가스업체의 적극참여 과제

서울시가 오는 2007년까지 서울 시내 버스를 CNG버스로 전면 교체한다는 기존 환경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명박 시장의 CNG버스 조기교체 방침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서울 시내버스 8179대 전체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CNG버스는 전체 버스의 98%인 803대로, 시는 일단 올해말까지 CNG버스를 125% 수준인 1020대, 2003년말까지는 245%인 2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6개소에 불과한 고정식 충전시설을 12월까지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03년말까지 10개소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재 37대가 운영 중인 이동식 충전차량도 연말까지 5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대형청소차 379대를 CNG 청소차로 교체, 운행하는 방안도 병행기로 했다.

다만 CNG버스 전면교체 방침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와 도시가스업체의 적극적 참여와 충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동식 충전사업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대로 2007년까지 전량 천연가스버스교체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7월중 최대전력수요 4,431만 kW, 예비율 15.9% 기록

수도권은 1,799만kW로 예비율 9.0% 기록

금년 7월중 최대전력수요는 4,431만 kW를 기록(7.20)하였으며, 당일 공급능력은 5,135만kW로 공급예비율이 15.9%를 기록함으로써 전력수급이 비교적 안정되게 추진됐다.

주별 최대전력수요 실적을 보면 첫째 주(7.4)에 4,362만kW를 기록하여 작년도 최대수요를 갱신하였으며, 둘째 주에는 4,251만kW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셋째 주(7.15)에는 4,377만kW로 재차 최대수요를 갱신하였으며, 넷째 주(7.25)에는 4,431만kW로 금년도 최대수요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교적 전력수급이 안정되게 추진된 이유는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자주 와서 습도는 높았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수도권 기온이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시간대에 32℃를 넘지 않아 전력수요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7월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7.25일에 전력수요관리를 통하여 167만kW의 피크를 억제하였으며 전력설비의 고장을 최소화하여 공급능력을 충분히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됐다.

열관리사업협회 기사제보 T.675-3436



열관리사업협회 광고문의 T.679-6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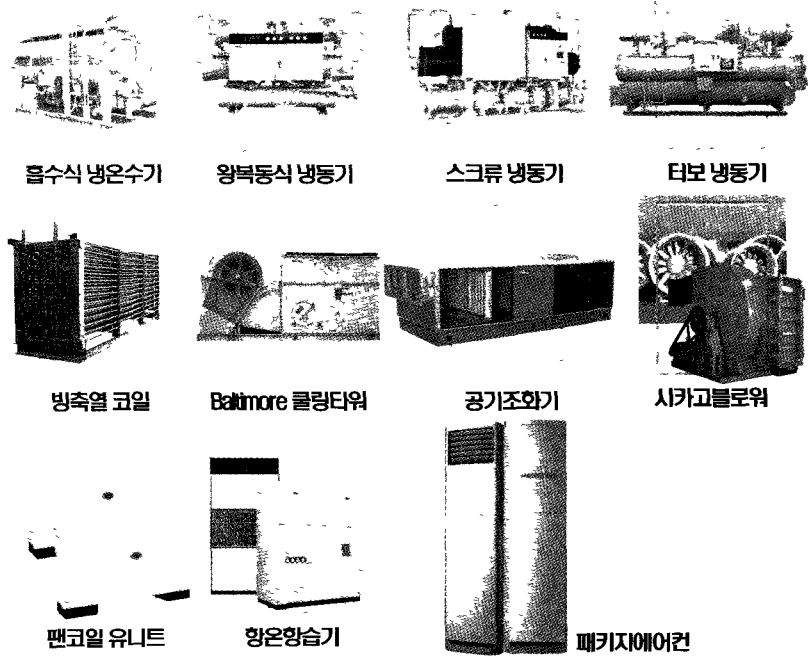
www.bac.co.kr

PAN
PANCORAN

PAN은 범양의 영문표기인 Panocoran의 첫음절을 형상화한 것으로 범천화적인 기업관과 초일류 냉동공조 기업으로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초일류 냉동공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한의 기술과 가치의 추구로 40여년 외길을 걸어온-범양냉방
풍요한 세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힘찬기업
제2, 제3의 도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범양과의 만남은 당신의 민족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